

## 세계영어 영한 동시통역 고충 — 인도영어 사례분석

허 지 운  
(이화여대)

### 1. 서론

국제 교류의 확대로 서로 다른 문화 및 언어권 간의 의사소통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언어는 당시의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에는 영어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영어는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를 통하여 대영제국에 속했던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지로 전파되었고, 최근에는 국제 교류의 확대로 영어 사용이 더욱 확산되어 21세기 들어 비영어권 영어 사용자가 원어권 영어 사용자 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Graddol 2006: 94-104).

전 세계 영어 사용 인구를 사용 지역·문화·역사 차원에서의 공통점에 따라 분류하면 카츠루(Kachru 1985: 12-13)가 구분한 내부동심원, 외부동심원, 확

장동심원의 세 개의 동심원으로 구분된다. 내부동심원은 흔히 원어민 영어로 볼 수 있고, 외부동심원은 인도, 필리핀 등 과거 영어권 국가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은 경험이 있고 다민족·다언어 국가여서 자국 내 상호 의사소통을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고유의 지역영어가 발전된 곳을 가리킨다. 한편, 확장동심원은 뚜렷한 모국어는 있지만 국제 교류 등 필요에 의해 영어를 제2언어로서 학습하여 외부와의 교류 등을 위해 사용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카츠루의 세계영어 분류에서 보듯,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이유로 영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각자 속하는 지역의 문화와 모국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처럼 영어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통역 현장에서도 다양한 발화 특성을 지닌 외국 연사들을 접하게 된다. 흔히 ‘엑센트(accent)’라고 표현하는 음운 특성을 지닌 외국 연사들의 발화는 실제로 통역사에게 고충요인으로 꼽히고 있다(AIIC 2002: 29). 그러나 비원어민 영어가 통역사에게 끼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는 알블미카사(Albl-Mikasa 2010)의 설문조사 연구 정도를 들 수 있으며, 아직 활발한 실증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고 특히 영한 통역에 특화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연구자는 세계영어가 영한통역사에게 끼치는 고충 요인과 그로 인하여 통역 결과물에 나타나는 문제를 실험 조사를 통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다만, 세계영어의 모든 변종을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인도영어를 대상으로 음운 층위의 고충요인에 대한 실험 연구를 소개하기로 하였다. 인도영어를 택한 이유는 첫째, 인도영어는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 중 가장 사용인구가 많기 때문이다<sup>1)</sup>. 둘째, 카츠루의 세 개의 동심원 모형 중 외부동심원에 해당하는 인도영어는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과정에서 인도어 및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 토착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뚜렷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1) 위키피디아(Wikipedia)의 능숙한 영어 구사자 인구 순위를 보면 인도영어는 약 1억 2천명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2위에 해당한다([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English-speaking\\_population](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English-speaking_population)).

## 2. 이론

### 2.1. 음운과 통역

통역은 한 언어로 표현된 사고와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긴다는 점(Brislin 1976, Pöchhacker 2004: 12에서 재인용)에서는 번역과 같지만, 번역과 달리 구어를 대상으로 하고 즉시성을 갖는다는 차이점이 있다(Pöchhacker 2004: 10).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통역에서는 입력 요인 중 특히 연사의 발화 특성과 관련된 요인이 통역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사의 발화 특성 중 음운 요소가 중요한 입력 변수를 차지하는데, 국제회의통역사협회(AIIC 2002: 29)의 “Workload Study(작업 부하 연구)”와 알블미카사(Albl-Miakasa 2010)가 언급한 ‘엑센트(accent)’ 또한 음운 특징에 해당하며, 질(Gile 1995: 173)은 강한 엑센트로 인하여 듣기 및 분석의 인지능력 요구량이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음운 요소는 크게 분절적 특성과 초분절적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분절적 특성이란 자음과 모음의 발음에 해당하는 특성이며, 초분절적 특성이란 운율(prosody)에 관계된 것으로, 리듬, 강세, 억양, 휴지 등이 해당된다. 음운 요소에서 이탈(deviation) 현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통역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의 제1청중 또한 듣기 및 분석 단계에서 고충을 겪을 것이다. 물론 공용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Lingua Franca, ELF)만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서로의 발화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발생해도 의사소통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지만, 통역의 경우에는 원천텍스트의 모든 요소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다(Albl-Mikasa 2010: 136-37). 더군다나 소리로서 처음 통역사에게 인지되는 연사 발화의 음운 요소는 통역의 듣기 및 이해 과정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음운 요소 중 분절 특성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에서 분절 요소의 이탈이 발생할 경우 청자의 이해를 저해시킨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나며, 와이즈머와 마틴(Weismer & Martin 1992: 83)은 분절 요소와 초분절 요소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화자의 발화에서 분절 요소의 이탈이 발생하면 청자는 분절 요소 인식뿐만 아니라 리듬 구조를 포함한 초분절 요소의 인식까지

저하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리버만(Lieberman 1967)과 윙필드 외(Wingfield et al. 1984)가 주장하듯, 분절 요소와 초분절 요소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으므로, 분절 요소의 이탈이 발생하면 초분절 요소가 정확하게 발화되어 분절 이탈을 보완하지 않는 이상 명료도 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Mazzetti 1999: 127에서 재인용).

영어에서 초분절 요소는 ‘강조하기(highlighting)’와 ‘구절법(phrasing)’이라는 두 가지 소통 기능을 구현하는데, 강조하기는 단어 강세 및 문장 강세를 통하여 신정보와 구정보를 구분하고, 구절법은 문장의 통사적 구조 파악을 돕는다 (Meng et al.: 1716).

통역 연구 중 초분절 특징에 관한 연구로는 우선 거버(Gerver)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거버는 출발어 텍스트를 억양의 차이를 두고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은 후, 억양 차이가 통역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번역된 단어수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단조로운 억양으로 읽은 경우 ‘대체’ 오류가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erver 1971, Pöchhacker 2004: 129에서 재인용). 특히 ST 연설의 억양이 단조로운 데다가 휴지까지 짧은 경우엔 통역사가 체감하는 ST 발화 속도가 더 빠르고 통역하기에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Déjean le Féal 1982, Pöchhacker 2004: 130에서 재인용).

마제티(Mazzetti 1999: 142)는 독일어 ST의 분절 및 초분절 요소가 통역 과정과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ST에서 분절 및 초분절 요소의 이탈이 조금만 발생해도 청자의 명료도를 떨어뜨려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T에서 단조로운 억양으로 발화되어 정보 단위(information unit)의 수가 줄어든 경우, 통역사들은 언어 항목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때로는 못 듣고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바람에 놓친 부분을 만회하느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ibid: 142-43). 또한 ST에서 복합어 사이에 휴지를 둔 경우 통역 결과물에서 의미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ibid: 143).

이처럼 음운 요소의 이탈은 통역사의 듣기 및 이해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선행 이론 고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영어의 음운 특성이 영한 통역사의 통역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하기 때문에, 다음

질을 통하여 세계영어 중 인도영어가 갖는 음운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실험용 ST에 적용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2.2. 인도영어 음운 특징

인도를 포함하여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아우르는 남아시아 지역은 식민 통치의 역사로 인해 약 200년에 걸쳐 영어가 사용된 지역으로 영어가 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사회·경제적 신분 상승의 도구인 동시에, 모국어가 다양한 남아시아 지역에서 소통을 위한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 (Gargesh 2009: 90). 크리스탈(Crystal 2008: 5)은 인도의 영어 사용 인구가 3억 5천만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그는 1996년 기준 전체 인구의 4-5%가 영어를 사용하며 미국과 영국에 이어 영어 사용 인구가 전 세계 3위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Crystal 1997: 41).

인도의 언어는 영어와 명확한 음운적 차이를 지니고 있다. 영어의 모음이 22개인데 반해 힌두어는 모음 기호가 10개로 현저히 적고, 영어의 자음이 24개 인 것에 비해 힌두어는 40개에 이르는 자음 기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ckle 1987: 171). 초분절적으로는 인도의 언어들은 음절 박자 언어의 특성을 띄기 때문에 인도영어는 분절 및 초분절적으로 내부동심원의 원어인 영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문헌을 고찰하여 정리한 인도영어의 음운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Deterding 2010: 391-92; Kirkpatrick 2007: 92-93; Shackle 1987: 171-75; Trudgill & Hannah 1994: 128; Wells 1982: 626-631).

<표 1> 인도영어 음운 특성

구분		특성	원어인 영어	인도영어
분절	모음	모음대조 부족	/ɑ:/와 /ɔ:/	모두 /ɑ:/
			/æ/와 /ɒ/	모두 /a/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ei/	/e:/
			/əʊ/	/o:/
	자음	마찰음의 기식음화	/θ/	/tʰ/
		혹은 무기음화	/ð/	/d/
/r/의 설탄음 혹은 권		/r/	/ɾ/	

		설 설단음화		/t/
		치경음의 권설음화	/t/	/t/
			/d/	/d/
			/l/	/l/
		자음간 구분 불명확	/v/와 /w/	구분 불명확
		어두운 /l/의 맑은 /l/화	어두운 /l/	맑은 /l/
초분절	리듬	분절 박자 언어(syllable-timed language)		
	강세	단어 강세 오류		
		문장 강세 오류: 기능어 강세		
	억양	강조를 위하여 음조 높낮이 활용		
		단조로운 억양		

상기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도영어에는 분절 및 초분절 층위 전반에 걸쳐 인도의 언어 특색이 많이 반영되어 있고, 내부동심원 음운 특성으로부터의 체계적 이탈 현상이 관찰된다.

다음 절에서는 실험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본 통역 실험에서는 상기의 인도영어 특색이 충분히 반영된 ST를 선정하여 위 특성 중 영한 통역사가 고충을 느끼는 구체적 요인 및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3. 연구절차

#### 3.1. ST 선정

인도영어의 음운 특성이 영한통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를 계획하였다. 본 실험을 위하여 경력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전문 영한 통역사 10인을 대상으로 동시통역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참가자 10인의 해외 체류 경험을 보면, 미국 지역 체류 경험자가 6인, 유럽권이 2인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영어인 인도영어가 사용되는 지역인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의 지역에 체류한 경험이 있는 참가자는 없었다.

실험에 사용한 ST 텍스트는 총 5분 길이로, 속도는 4.3 sps(syllables per second, 초당분절수)이다. 이는 타우로자와 엘리슨(Tauroza & Allison 1990:

103)이 원어민의 보통 발화 속도에 해당하는 범위라고 밝힌 범위 안에 있다. 주제지식이나 전문용어 등의 고충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인도 제도 개혁’이라는 주제 하에 다소 평이한 내용으로 전개되는 텍스트를 선택하였고, 주요 용어 및 내용은 주제지를 사전에 제시하며 충분한 설명을 곁들였다. 또한 본 실험을 위해 사용된 ST에는 앞서 선행 이론 고찰을 통해 정리한 인도영어의 음운 특성이 아래 <표 2>와 같이 반영되었다.

<표 2> ST에 반영된 인도영어 음운 특성 비중

전체 자음 중 이탈 자음 비중	14.7%
전체 모음 중 이탈 모음 비중	1.5%
강제 이탈된 단어 비중 (단어 내 음조이탈은 포함하지 않음)	2.5%
강제가 있는 기능어 비중	40.1%
문미 억양 이탈 문장 비중	22.6%
문 내 억양 이탈 문장 비중	7.8%
총 휴지 비중	27.6%

<표 2>에 반영된 이탈 특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수하였다. 자음과 모음 이탈의 경우, <표 1>에 드러난 인도영어의 특성이 드러난 자음과 모음을 계수하였다. 강제 이탈의 경우 컴퓨터 음성 분석기인 ‘Praat’<sup>2)</sup>를 통해 분석한 강제 곡선이 사전적 강제가 있는 음절이 아닌 다른 음절에 있는 경우를 강제 이탈 단어로 계수하였다. 강제가 있는 기능어의 경우, 기능어 중 음성 분석기 상 강제 곡선이 주변 내용어와 비슷한 강도로 들어간 단어들을 계수하였다. 억양 이탈의 경우, 통상적으로 평서문에서는 문미에는 하강 억양, 의문문의 문미에서는 상승억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반대로 억양이 진행된 경우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장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하강 억양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하강 억양을 사용한 경우를 문장 내 억양 이탈로 계수하였다. 억양 분석에

2) ‘Praat’는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음성학 교수가 개발한 음성분석 연구용 프로그램이다 (<http://www.fon.hum.uva.nl/praat/>).

는 음성 분석기 ‘Praat’의 음조 곡선을 활용하였다. 휴지 시간도 음성 분석기 ‘Praat’의 파형(sound waveform)이 일직선의 형태를 보이며 음성이 전혀 없는 부분을 휴지 시간으로 측정하였다.

그 외 ST에 관한 정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ST 정보

주제	인도 제도 개혁
연사	수레쉬 프라부(Srhi. Suresh Prabhu), 전 인도 산업부 장관
일시	2011년 11월 13일
발표형식	강연
길이	5분
발화속도	4.3sps

### 3.2. 실험 절차

본 통역 실험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실험참가자가 직접 동시통역을 하고, 2 단계와 3 단계에 걸쳐 자극회상구술(stimulated retrospective think-aloud)<sup>3)</sup>을 실시하였다. 1단계 본 통역 단계는 실험참가자가 부스 안으로 들어가 동시통역을 하는 단계이다. 본 통역 실시에 앞서 실험 참가자들은 주제지를 받고 주제, 용어, 배경지식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주제지에는 ST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와 함께 필요한 대응어를 함께 제시하였고 대응어가 떠오르지 않는 경우 영어 어휘를 그대로 써도 무방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텍스트에 담긴 내용과 관계된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하여 주제, 용어, 대응어, 배경지식이 통역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다음으로, 실험 참가자는 통역할 분량의 직전 부분을 약 2분 정도 들으며 연사의 발화 스

3) 자극회상구술(stimulated retrospective think-aloud)은 회상구술의 기억 소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ST 또는 TT 음성 텍스트, 노트테이킹 노트 등 기억 유발 단서를 이용하여 통역 과정에 관하여 실험 참가자가 기억을 환기하여 구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원종화 2010: 7-8).

타일과 통역할 내용에 대해 익숙해지는 기회를 가졌다. 직전 분량을 2분 정도 청취하는 이유는 통역할 분량이 5분 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역할 내용의 맥락을 파악하여 내용이나 맥락 등의 변수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스타일의 발화를 갑작스럽게 들어 당황하게 되면 본 실험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음운적 요소가 아닌 심리적인 변수 등 다른 변수가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통역할 음성 파일 형태의 ST는 맥북에어 노트북의 ‘무비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생하였으며, 사전에 음질 체크를 하여 실험 참가자들로부터 음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2단계에서는 실험 참가자가 부스 밖으로 나와 자극회상 구술을 실시하였다. 실험 참가자에게는 ST의 전사본이 제공되었고, 참가자는 ST 음성 파일을 다시 들으며 1단계 본 통역 시 음운 요인으로 고충이 있었던 부분을 회상하여 해당 하는 곳에 밑줄 표시하였다. 밑줄은 단일 어휘 단위에서부터 복수 문장에 걸친 단위까지 해당되는 대로 표시하도록 안내하였다. 밑줄 표시한 부분의 음운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었을 경우 실험 참가자는 구술을 통하여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여 정성적인 사례 분석을 함에 있어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3 단계에서는 실험 참가자가 인도영어 ST를 통역하면서 느낀 전반적인 고충에 대해 자유롭게 구술하였다.

이상과 같이 ST를 선택하였고, 전술한 실험 절차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 4. 분석

실험 분석을 위하여 우선 실험 참가자가 고충을 느꼈다고 밑줄 표시한 부분의 발화에서 발견되는 인도영어의 음운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밑줄 표시한 부분을 중심으로 통역 결과물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지촉발자, 잠재촉발자, 표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인지촉발자, 잠재촉발자, 표시자 개념은 바로니스와 가스(Varonis & Gass 1992)가 비원어민 간 대화에서 불가해성(non-understanding)의 해결 과정에서

사용한 용어를 본 연구에 맞게 응용한 것이다. 바로니스와 가스는 비원어민 간 대화에서 화자의 말을 청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 되묻거나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 불가해성을 표시하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불가해성을 표시하는 반응이 표시자(indicator)이며, 불가해성을 촉발한 원 발화자의 발화 속에 담긴 요소는 촉발자(trigger)라고 바로니스와 가스는 설명한다. 본고에서는 인도영어 고유의 특성을 잠재촉발자(potential trigger), 그리고 통역사가 통역 시 인지하기 힘들었던 연사의 발화를 인지촉발자(perceived trigger)로 바로니스와 가스의 ‘촉발자’ 개념을 세분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통역 결과물에 드러난 불가해성의 결과 즉 통역 오류 및 의미 변형을 표시자(indicator)라 칭하고자 한다.

인지촉발자 및 잠재촉발자의 초분절 요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억양과 강세를 보다 세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음성분석 프로그램인 ‘Praat’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물을 제시함에 있어, 통역 결과물에서 의미 전달의 변형이 발생한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어휘, 구·절, 단일문장, 복수문장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결과물 제시 형식은 다음과 같으며 인지촉발자는 한줄 밑줄로 표시하였다.

[INE ST1] This is sample sentence 1.  
(TT) 위 ST 문장에 대한 TT 문장입니다.

다만, 하나의 ST 문장에 대하여 인지촉발자가 서로 다른 복수의 실험 참가자의 사례를 소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표기하기로 한다.

[INE ST1] This is sample sentence 1.

[INE ST1-1] This is sample sentence 1.  
(TT1) 첫 번째 하위 사례의 TT입니다.

[INE ST1-2] This is sample sentence 1.  
(TT2) 두 번째 하위 사례의 TT입니다.

[INE ST1-3] This is sample sentence 1.  
(TT3) 세 번째 하위 사례의 TT입니다.

사례 분석에 앞서 실험 참가자들이 해당 인도영어 ST에 대하여 느낀 고충

및 대응전략에 대한 정량적 통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표 4>에서 보듯, 실험 참가자 10인이 인도영어 ST에 표시한 인지촉발자를 단어 수 기준으로 계수한 결과 실험 참가자 개인 평균 144 개, 전체 텍스트 중 비중은 평균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지촉발자 통계

실험 참가자 평균 인지촉발자 표시 단어 수	실험 참가자 평균 전체 텍스트 중 인지촉발자 표시 비중	ST 단어 수 총계
144 개	16.7%	863 개

인지촉발자로 인하여 통역 결과물에 나타난 문제는 의미 오류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통역 오류 분석에 있어서 주관성의 문제를 피하고자 지나치게 세분화된 오류 분류를 시도하기보다는 명시적인 ‘생략’, 오역을 포함하는 의미의 ‘대체’,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린 ‘요약’의 세 가지로 간략히 분류하였다. 실험 참가자 10인이 표시한 인지촉발자 전체에 대하여 통역 결과물에 드러난 오류를 분석한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생략이 872 개, 전체 중 비중은 60.7%로 가장 많았고, 의미 대체가 29.9%로 생략과 큰 격차를 보이며 그 뒤를 이었으며, 정확한 통역으로 귀결된 경우는 7.4%에 불과했다.

<표 5> 오류 통계

	생략	대체	요약	정확
단어 수	872	429	30	106
비중(%)	60.7%	29.9%	2.1%	7.4%

\*실험 참가자 인지촉발자 총계: 1,437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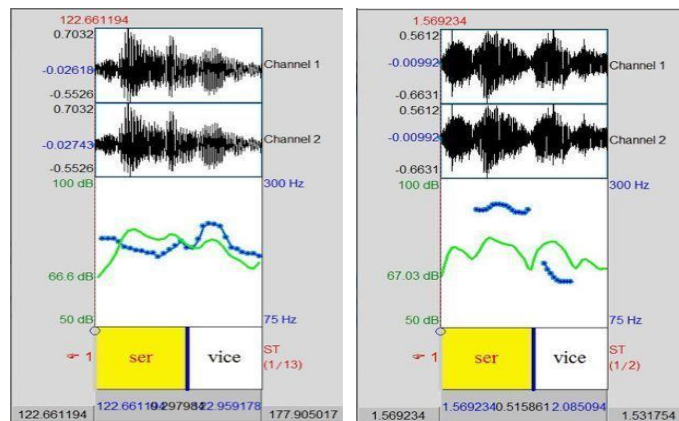
이상에서 보듯, 실험 참가자들은 인도영어 ST를 통역하면서 음운으로 인한 고충을 많이 느꼈으며 통역 결과물 상으로는 생략으로 이어진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고충 요인과 통역 결과물 상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4.1. 어휘

[INE ST1] And then they must be able to service the bank accounts.  
 (TT) (모든 사람들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고) 또 액세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ST 발화에서 음운 인지촉발자인 ‘service’가 TT에서 ‘액세스’로 대체한 경우이다. 분절적 특징을 보면 ‘service’의 ‘r’이 설탄음 /r/로 발음되었다. 초분절적인 특징을 보면, 미국영어식으로 발화할 때 ‘service’는 사전적으로는 동사로 사용될 때에도 1음절에 단어 강세가 있으며 음조도 1음절에서 높다. 그러나 위 인도영어 문장을 보면 강세 자체는 1음절에 있으나 단어 음조가 2음절에서 고조된다. 더불어 해당 어휘 주변의 기능어들에게도 강세가 주어졌고 전반적인 문장의 억양도 내부동심원과 비교했을 때 단조로워서 음운적 명료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그림 1(좌)>에서는 인도영어 ST에서 ‘service’의 음조와 강세를 표시한 것이고, <그림 1(우)>에서 보듯, 미국영어 발화의 경우 음조는 1음절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문장은 총 6인의 실험 참가자가 음운적 명료도 고충을 지적하였다.

<그림 1> 인도영어(좌)와 미국영어(우)로 각각 발화한 ‘service’의 강세(호린 선) 및 음조(굵은 점선)<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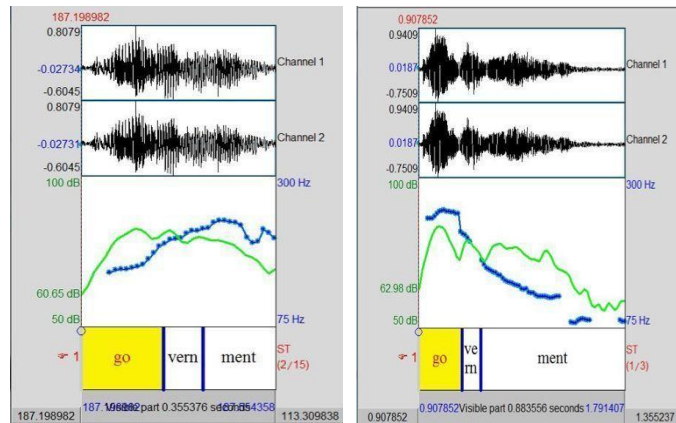
4) 인도영어(좌)는 본 인도영어 ST의 발화의 음성 분석 결과이며, 미국영어(우)는 네이버 영어사전의 음성재생 기능을 이용하여 확보한 ‘service’ 발음의 음성 분석한 결과이다.

[INE ST2] And that system should be in form of how to have government accounts properly made.

(TT) 그리고 그 시스템은 어떻게 하면 은행 계좌를 제대로 개설하느냐에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음운 인지촉발자인 ‘government accounts’가 TT에서 ‘은행 계좌’로 대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T에서는 위 문장의 직전 부분에서 ‘은행 계좌’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고 대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government’의 경우 분절적으로는 2음절 ‘-ver-’의 ‘v’가 /v/가 아닌 /w/로 발음되었고, 단어 음조의 이탈도 관찰되었다. 사전적으로 ‘government’는 1음절인 ‘gov-’에 강세가 있고 음조 또한 1음절에서 높고 2음절에서 떨어진다(<그림 2(우)> 참조). 그러나 위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 뿐 아니라 인도영어 ST 전반에 걸쳐 ‘government’는 아래 <그림 2(좌)>에서 보듯, 강세는 1음절에 있으나 음조는 2음절인 ‘-ver-’에서 고조되어 3음절인 ‘-ment’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음운 명료도 저하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림 2> 인도영어(좌)와 미국영어(우)로 각각 발화한 ‘government’의 강세(흐린 선) 및 음조(굵은 점선)5)



5) 인도영어(좌)는 본 인도영어 ST의 발화의 음성 분석 결과이며, 미국영어(우)는 네이버 영어사전의 음성재생 기능을 이용하여 확보한 ‘government’ 발음의 음성 분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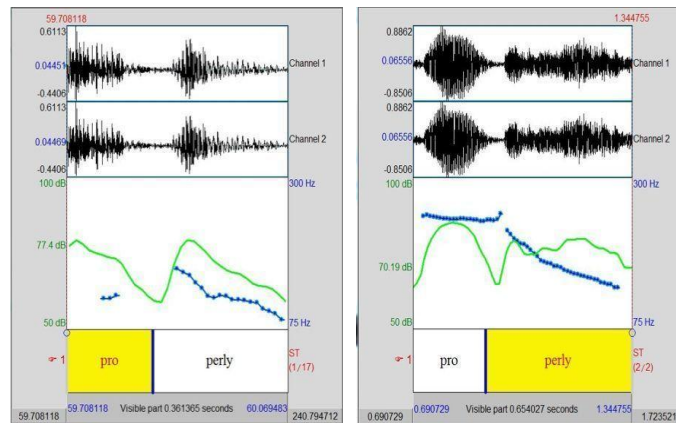
#### 4.2. 구·절

[INE ST3] But point I'm saying is, the banking system, to bring about a system like this, every person must have bank account to make it happen properly.

(TT) 은행의, 은행 시스템, 이러한 은행 시스템이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1인 1계좌를 가져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음운 인지축발자인 to부정사구문에 해당하는 의미만 TT에서 생략되었다. 밑줄친 부분의 분절적 요소를 살펴보면, ‘happen’과 ‘properly’에서의 /p/ 발음이 모두 강하게 된소리인 /p̣/로 발음되었다. 초분절적으로는 <그림 3(좌)>에서 보듯, ‘properly’의 강세가 1음절에 있어 미국영어의 사전적 강세와 같지만, 음조는 강세가 있는 1음절이 아닌 2음절에서 고조된다. 이는 <그림 3(우)>에서 보듯, 1음절에 강세가 있고 음조도 높은 미국영어와는 차이가 있다.

<그림 3> 인도영어(좌)와 미국영어(우)로 각각 발화한 ‘properly’의 강세(흐린 선) 및 음조(굵은 점선)<sup>6)</sup>



6) 인도영어(좌)는 본 인도영어 ST의 발화의 음성 분석 결과이며, 미국영어(우)는 네이버 영어사전의 음성재생 기능을 이용하여 확보한 ‘properly’ 발음의 음성 분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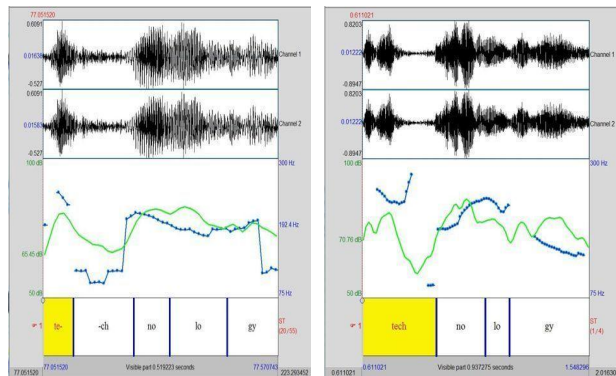
### 4.3. 단일문장

다음 세 사례에서는 동일한 문장이 전체 생략되었다.

- [INE ST4] We really need to use some other technology.
- [INE ST4-1] We really need to use some other technology.
- [INE ST4-2] We really need to use some other technology.
- [INE ST4-3] We really need to use some other technology.

위 사례에서 잠재촉발자를 보면 분절적으로는, ‘really’의 ‘r’이 설탄음 /r/로, ‘other’의 ‘th’가 /ð/가 아닌 /d/로, ‘technology’의 ‘t’가 /t/로 경음화되어 강하게 발음되었다. 초분절적으로는 ‘technology’의 단어 강세와 음조의 이탈 현상이 관찰된다. ‘technology’는 사전적으로 2음절인 ‘-no-’에 강세가 있다. 그에 반해 인도영어 ST에서 강세는 1음절인 ‘tech’에 강하게 들어가면서 ‘t’가 경음화되어 매우 강한 음운 효과를 내는 한편 음조는 2, 3, 4 음절에 걸쳐 높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분절적 이탈요소와 함께 음운 명료도 저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그림 4(좌)>참조). 이는 <그림 4(우)>의 미국영어와 대비된다. 총 3인의 실험 참가자가 해당 문장의 음운 명료도 고충을 지적하였다.

<그림 4> 인도영어(좌)와 미국영어(우)로 각각 발화한 ‘technology’의 강세(흐린 선) 및 음조(굵은 점선)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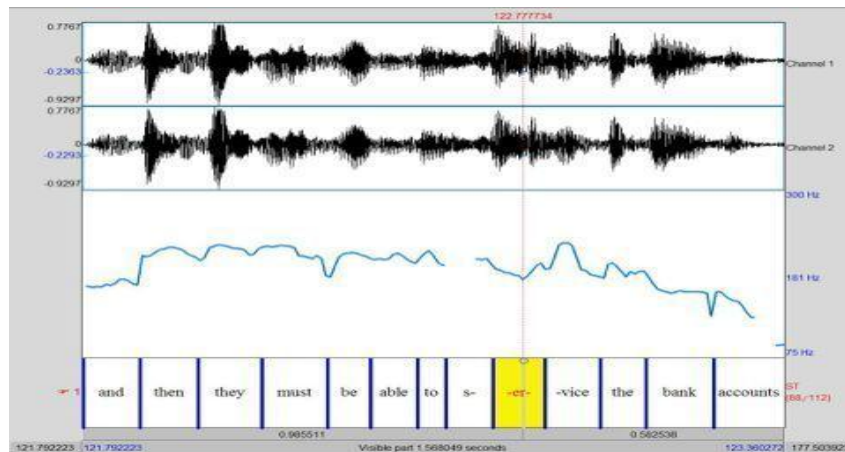
7) 인도영어(좌)는 본 인도영어 ST의 발화의 음성 분석 결과이며, 미국영어(우)는 네이버 영어사전의 음성재생 기능을 이용하여 확보한 ‘technology’ 발음의 음성 분석한 결과이다.

아래 문장의 경우 총 6인의 실험 참가자가 음운 명료도에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표시하였으며 특히 음운 인지촉발자는 ‘service’에 집중되었다.

[INE ST5] And then they must be able to service the bank accounts.  
 (TT) (전체생략)

위 ST 문장에서 ‘service’의 ‘r’이 설탄음 /r/로 발음되어 분절적 이탈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위 문장에서는 분절적 특징보다는 초분절적 특징이 더 두드러진다. ‘service’의 단어 강세는 사전적 강세와 같은 1음절에 있으나 음조는 강세가 있는 음절이 아닌 2음절에서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음운명료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그림 5>에서 보듯, 문장 전체적으로 기능어 강세가 많고 음조도 전체적으로 단조로운데, ‘service’의 1음절에서만 음조가 띄어떨어진다. 이처럼 분절 및 초분절적 특징으로 인하여 음운명료도가 저하된 것으로 분석된다. TT에서는 해당 문장이 모두 생략되었다.

<그림 5> (INE ST5)의 인도영어 음조 곡선



다음은 아래 문장에 대한 통역 사례들이다.

[INE ST6] But government have two sorts of corruption, largely.

[INE ST6-1] But government have two sorts of corruption, largely.

[INE ST6-2] But government have two sorts of corruption, largely.

[INE ST6-3] But government have two sorts of corruption, largely.

TT에서는 세 사례 모두 문장 전체 생략으로 처리되었다. 위 문장에 드러난 분절적 특징을 보면, ‘have’의 ‘ve’가 /v/가 아닌 /w/로, ‘corruption’의 ‘c’가 /k/가 아닌 경음화된 /ḳ/로, ‘rr’은 설탄음 /r/로 발음되었다. 초분절적으로는, ‘government’가 강세는 사전적 강세와 같은 1음절에 있지만 음조는 강세와 분리되어 2음절에서 고조되었다(<그림 2> 참조).

다음은 아래 ST 문장의 통역 사례에 대한 설명이다.

[INE ST7] And there’s no need that every every problem ( ) ( ) ( )<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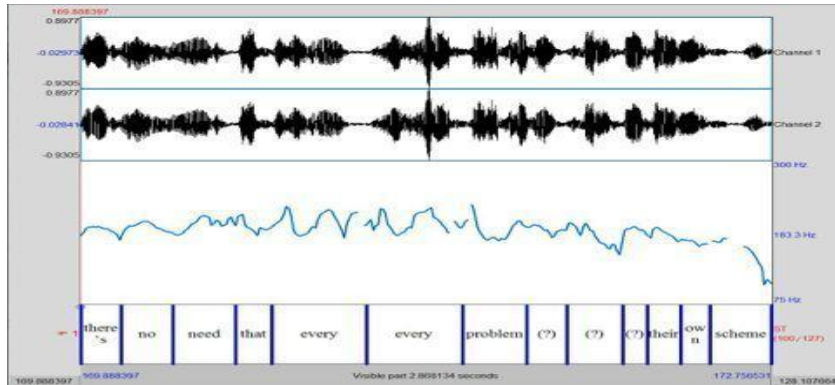
their own scheme.

(TT) (전체생략)

위 문장의 경우 ‘problem’과 ‘their’ 사이의 세 단어의 음운명료도가 매우 낮아서 통역 고충이 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실험 참가자가 해당 문장을 전체 생략하였다. 특히 위 문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세 단어는 품사 위치상 본동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본동사를 모른 상태에서 문장 일부만 통역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초분절적으로도, 문장 전체적으로 아래 <그림 6>에서와 같이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이는 단조로운 억양을 띠었다.

8) 해당 문장의 괄호 부분은 음운 명료도가 지나치게 떨어져 단어 인식이 안 되어 괄호로 비워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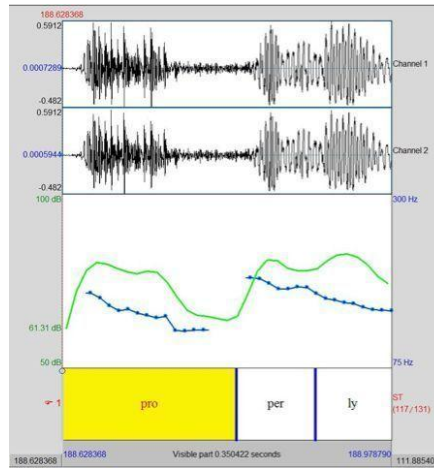
〈그림 6〉 (INE ST7)의 인도영어 음조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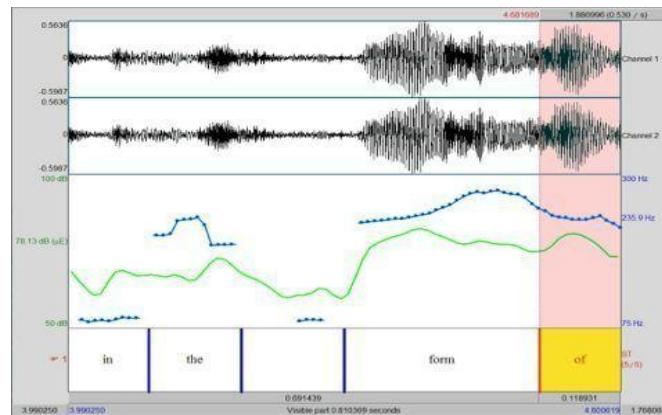
[INE ST8] And that system should be in form of how to have government accounts properly made.  
 (TT) (전체 생략)

위 사례의 경우도 문장 전체가 생략되었다. 그러나 위 문장은 다른 문장과 인과 관계나 종속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략되어도 중대한 의미 변형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문장의 밑줄친 부분 중 분절적 이탈은 ‘properly’에서 발생하였는데, /p/ 발음이 모두 경음화되어 /p̣/로 강하게 발음되었다. 또한 초분절적으로도 ‘properly’는 이탈현상을 보였다. <그림 7>에서 보듯, 사전적 강세인 1음절 강세는 동일하나 음조는 2음절에서 고조되었다. 또한 ‘in form of’의 경우 기능어에 모두 강세가 주어져 전체적으로 높은 음조가 단조롭게 이어지면서 단어 간 구분이 불명확해졌다. ‘in form of’의 경우 ‘in the form of’의 ‘the’가 누락되는 문법적인 오류도 관찰된다. <그림 8>에서 보듯 미국영어식으로 ‘in the form of’를 발화하면 기능어인 ‘in’은 낮은 음조로 약하게 발음되고 ‘the’는 음조는 조금 올라가나 강세는 약한 편이다가 ‘form of’ 부분에서 음조와 강세가 모두 고조된다. 그에 반하여, <그림 9>의 인도영어 ST에서는 ‘the’가 생략되면서 ‘in form of’의 음조와 강세가 모두 높고 강하게 유지되어서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들릴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분절 및 초분절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음운명료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7〉 'properly'의 강세(흐린 선)와 음조곡선(굵은 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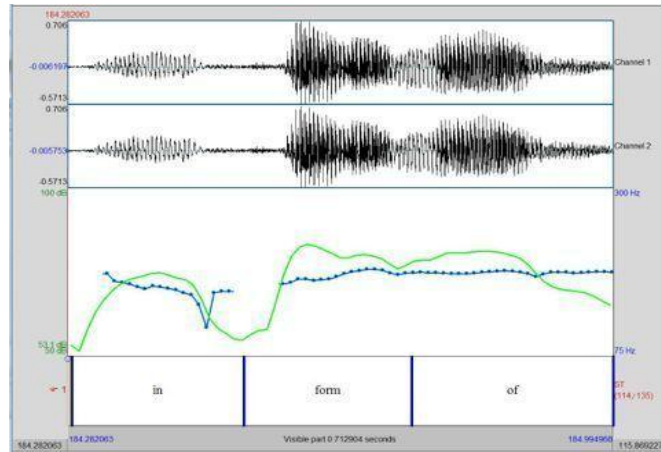


〈그림 8〉 미국영어의 'in the form of' 강세(흐린 선) 및 음조(굵은 점선)<sup>9)</sup>



9) 인도영어 ST의 텍스트를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미국 플로리다 출신의 30대 미국 남성이 발화한 것을 분석한 것이다.

〈그림 9〉 인도영어의 'in form of' 강제(흐린 선) 및 음조(굵은 점선)



다음은 아래 문장에 대한 통역 사례이다.

[INE ST9] There are four stages in which the important part of government accounts really takes place.

[INE ST9-1] There are four stages in which the important part of government accounts really takes place.

[INE ST9-2] There are four stages in which the important part of government accounts really takes place.

TT1과 TT2 모두 문장 전체 생략을 하였다. 위 문장은 ‘정부 계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단락의 주제문에 해당하지만, 연사가 뒤이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위 문장이 TT에서 생략되어도 통역사는 뒤에서 이를 다시 보충할 여지가 있다. 분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r/은 설탄음 /r/로, /p/는 경음화된 /p̄/로, ‘accounts’의 ‘cc’는 /k/가 아닌 /k̄/로, ‘takes’의 ‘a’는 이중모음 /ei/가 아닌 단모음 /e/로 변형되어 발음되었다. ‘government’의 경우 분절적으로는 2음절의 /v/가 /w/로 발음되었고, 초분절적인 층위에서도 이탈이 발생하였다. 강제는 사전적 강제와 같은 1음절이나 음조는 2음절에서 고조되었다.

다음은 아래 문장에 대한 인지촉발자 표시 사례들이다.

[INE ST10] Of course, here, 'Serversixiavian' unfortunately not focusing on quality as much.

[INE ST10-1] Of course, here, 'Serversixiavian' unfortunately not focusing on quality as m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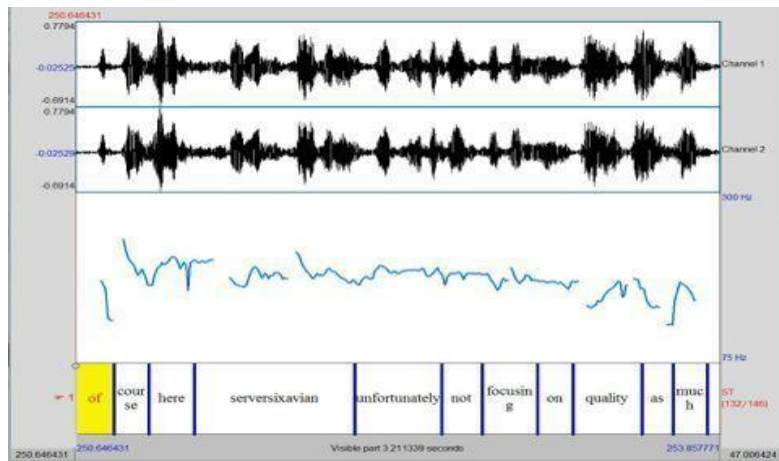
[INE ST10-2] Of course, here, 'Serversixiavian unfortunately not focusing on quality as much.

[INE ST10-3] Of course, here, 'Serversixiavian unfortunately not focusing on quality as much.

[INE ST10-4] Of course, here, 'Serversixiavian' unfortunately not focusing on quality as much.

위 네 가지 사례 모두 TT에서 문장 전체가 생략되었다. 잠재축발자를 보면, 분절적으로는 'here'의 're'와 'Serversixiavian'의 'r'은 설탄음 /r/로, 'focusing'의 'o'는 이중모음인 /ɔs/이 아닌 /o/으로, 'focusing'의 'c'와 'quality'의 'q'는 /k/가 아닌 경음화된 /k̄/으로, 'quality'의 't'는 경음화된 /t̄/로, 'much'의 'ch'는 /tʃ/ 발음은 생략되고 폐쇄음으로 마무리되었다. 초분절적으로는 <그림 10>과 같이 단조로운 억양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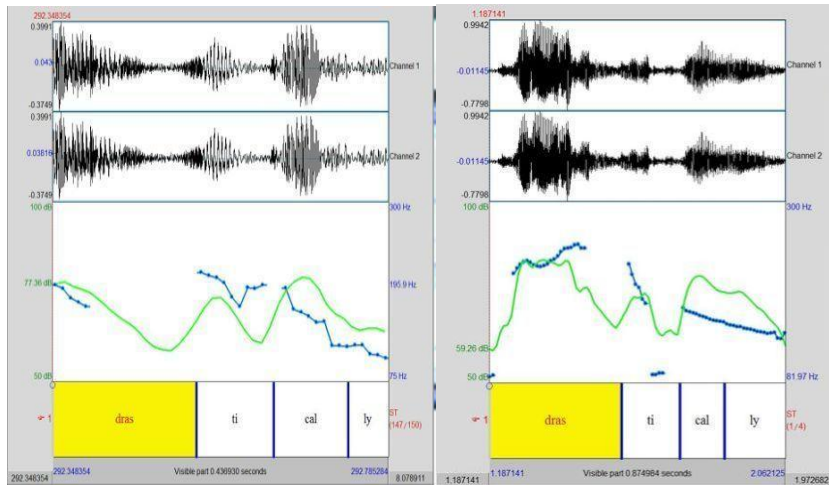
<그림 10> [INE ST10]의 인도영어 음조 곡선



[INE ST11] And that itself will bring down the corruption drastically.  
 (TT) (전체생략)

위 사례의 경우 문장 전체가 생략되었다. 3인의 실험 참가자가 이 문장의 ‘drastically’를 음운 인지촉발자로 표시하였다. 분절적으로는 실탄음 /r/이 한 건만 발생했다. 초분절적으로는 <그림 11(좌)>에서 보듯, 단어 강세는 사전적 강세와 마찬가지로 1음절에 있지만, 음조는 2음절에서 고조되어 음운 인식의 고충을 야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그림 11(우)>에서 보듯, 미국영어가 1음절에서 강세와 음조가 모두 높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림 11> 인도영어(좌)와 미국영어(우)로 각각 발화한 ‘drastically’의 강세(흐린 선) 및 음조(굵은 점선)<sup>10)</sup>



#### 4.4. 복수문장

[INE ST12] Government makes account. There are four stages in which the important part of government accounts really takes place. One is the budgeting itself. Then happens is government expenditure which is

10) 미국영어(우)는 네이버 영어사전의 음성재생 기능을 이용하여 확보한 ‘drastically’ 발음의 음성 분석한 결과이다.

accounts. Then is output and third is fourth and last is an outcome.

(TT) 아웃풋도 중요하지만 아웃컴도 중요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정부 계정의 네 단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outcome’과 ‘output’만을 언급하고 나머지는 생략되었다.

[INE ST13] That’s an outcome. But to get that outcome, you need outputs. What are the output? The outputs in the form of classroom X, teachers required, the quality of teacher, the quality of education.

(TT) 그리고 교사들도 마련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outcome’과 ‘output’ 간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의 음운이 명료하지 않아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이 모두 생략되고, 세 번째 문장에서는 ‘교육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 ‘outcome’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아닌 단순 열거로 전달되었다.

[INE ST14] but before that the last stage is outcome. Stage before that is output, the stage before that is actual expenditure incurred under the 'Serversixiavian', and the stage before that is budgeting which is made for 'Serversixiavian'.

(TT) 그래서 서브서비스아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여러 문장이 서로 연관된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예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생략되었다. 문장 전체적으로 음운 인식 고충이 있었던 영향으로 판단된다.

상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체 생략, 부분 생략, 대체 등이 통역 결과물에서 발견되었고 그 중 생략이 많았다. 이는 여러 문장에 걸쳐 분절 및 초분절적 고충이 야기되어 내용 이해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미 경(2013: 176)은 영한 동시통역에서 생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청취하지 못한 결과 이해를 못하고 결국 전체문장의 누락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처럼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실험 참가자들은 의미 대체를 시도하다가 오역으로 내용의 흐름을 끊기 보다는 전체적인 스피치의 논리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생략을 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표 6>은 1단계 본 통역 및 2단계의 자극회상구술 이후 최종적으로 3 단계에서 실험 과정에서 느낀 고충에 대하여 자유롭게 회상구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회상구술 내용

구분	내용
초분절	“단어와 단어 사이에 끊어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데, 한 번에 주루룩 나오는게 힘들다.” “단어가 끊어져야 되는데 그냥 ‘다다다다’ 얘기를 하니깐, 게다가 발음을 안 끊을 거면 명확하게 발음해야하는데, 그게 안 돼서 한 덩어리로 나오니깐 머리에 꽂히지 않는다. 무슨 단어를 말하려 하는 건지, 그러다보니깐 좀 힘들었다. ‘introduced’도 원래 인도네이션이 있는데 여기선 단조롭게 나온다. ‘introduced the payment’가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나온다.” “강세와 억양이 힘들다.” “강세가 네이티브와 다르다. 인도네이션도 끝 부분을 올리는 등 네이티브와 다르다. 문장에서 포즈(pause)를 두는 위치가 다르다.” “강세를 잘못 붙이면서 연음현상까지 일어나니깐 구분이 잘 안 간다.”
분절	“된소리가 방해된다.” “‘t’ 발음을 ‘ㄷ’로 발음한다. 발음이 뭉쳐서 정확하지 않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단어를 끊지 않고 이어서, 또, 굴러서 발음하여 단어 간 구분이 가지 않는다.” “‘r’ 발음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서 방해된다.”

<표 6>에서 보듯, 실험 참가자들은 분절 및 초분절 층위의 음운 인식에 고충이 있었음을 밝혔다. 초분절 요소의 경우, 단어와 단어 사이에 휴지 없이 덩어리로 나오거나 “주루룩” 나온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앞서 잠재촉발자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단조로운 억양이 휴지 없이 이어지는 인도영어의 특성을 가리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또한 단어가 끊어지지 않고 “다다다다” 얘기를 한다는 구술은 인도영어의 음절박자언어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도영어는 모음의 장단 구분이 약하고 발화되는 음절의 길이가 모두 유

사하다. 여기에 휴지까지 적을 경우 청자 입장에서는 같은 길이의 음절들이 구분 없이 “다다다다”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기 쉽다. 또한 원어민과 다른 강세와 억양이 힘들다고 한 부분은 앞선 사례들에서 단어 강세 및 음조 곡선이 원어민 발화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보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분절적으로는 된 소리와 굴리는 ‘r’ 발음에 대한 구술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앞서 사례 분석에서 살펴본 잠재촉발자 특성인 자음의 경음화 및 /r/ 발음의 설탄음화 현상과 일치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강세를 잘못 붙이면서 연음현상까지 일어나니깐 구분이 잘 안 간다”라는 구술이나 “단어를 끊지 않고 이어서, 또, 굴려서 발음하여 단어 간 구분이 가지 않는다”라는 구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초분절 요소는 분절 요소와 결합이 되면서 실험 참가자의 음운 인식 고충을 가중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 5. 결론

인도영어는 오랜 식민 통치 기간을 거치며 특유의 영어가 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다양한 인도어의 영향을 받아 분절 및 초분절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영어의 음운 특성이 반영된 음성 ST를 통역하는 실험을 실시하여 영한 통역사들이 느끼는 인도영어 음운 고충 요인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역 결과물에는 어떠한 문제가 드러나는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실험 결과 영한 통역사들은 인도영어의 분절 및 초분절 층위 전반에 걸쳐 고충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촉발자를 중심으로 잠재촉발자를 분석하고 자귀회상구술 내용을 정리한 결과, 분절적으로는 자음의 경음화 현상과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대표적인 고충 요인으로 나타났고, 초분절적으로는 분절박자 언어인 인도어의 영향을 받은 리듬, 억양, 강세 문제가 가장 큰 고충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초분절적으로 단어 강세 오류와 함께 기능어와 내용어 간 구분이 없는 높고 단조로운 억양이 분절적 이탈요소와 결합되어 복합적인 고충을 안겨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음운 특징으로 인하여 단어와 단어 간 구분이 용이하지 않아 문장 구조 파악까지 어려웠으며, 음운 인식 단계에서부

더 고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위의 고충요인으로 인하여 통역 결과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생략, 부분 생략, 대체, 요약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고 그 중 생략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선 인도영어의 경우 휴지가 적절한 곳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단어 간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소리들이 뭉쳐서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통역사들이 정보처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미 단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생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전문 통역사들이 통역 시 내용의 정확도와 논리적 흐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역을 유발하는 무리한 의미 대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기보다는 음운 인식이 어려웠던 부분에서는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통역에 있어서 음운적 요소는 1차적인 발화 인식 단계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인도영어처럼 음운 이탈이 심하면 영한 통역사에게 고충을 안겨주고, 결과물의 의미 전달 양상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충실한 통역을 방해하게 된다. 이에, 비원어민 영어 발화의 음운적 특징이 영한 통역사에게 고충을 안겨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회의 전 사전 미팅을 실시하거나, 주최 측이 연사에게 최대한 명료한 발화가 되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회의 참가자 모두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공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역 교육 측면에서도 다양한 비원어민 발화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의 비원어민 발화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영어 통역 고충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 참가자가 체감하는 고충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는 하나 총 10인의 참가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써 직접적인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둘째, 세계영어 중 외부동심원에 해당하는 대표 변종인 인도영어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점에서 분석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셋째, 발화란 음운 층위뿐만 아니라 통사, 텍스트, 화용적 층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층위의 결합체라는 점에서 모든 층위를 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우선적으로 음운 층위에만 집중한 면에서 분석 층위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세계영어가 영한 통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

로 생각하며, 향후 연구를 통하여 한계점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우선, 보다 확대된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 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조사 방법을 통해 주관적인 고충 파악을 넘어서 객관적인 일반화가 가능한 조사 결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영어 중 분석 대상 영어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역 회의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비영어권 영어를 중심으로 고충 요인을 연구하여 통역 실무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석 층위도 음운 층위뿐만 아니라 통사, 텍스트, 화용, 문화, 주제 등 다양한 층위로 확대하여 세계영어 특성이 영한통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다 종합적인 결론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원종화 (2010) 『한-영 동시통역 시 정보 처리의 방향성 연구: 은유 처리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미경 (2013) 「동시통역 과정에서의 언어방향성과 생략: 한영 vs. 영한 동시통역 데이터 비교」, 『번역학연구』 14(1): 155-181.
- AiIC (2002) ‘Workload Study’, <http://www.aiic.net/ViewPage.cfm/article467>.
- Albl-Mikasa, Michaela (2010) ‘Global English and English as a Lingua Franca (ELF):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ing Profession’, *Trans-Kom*, 3(2): 126-148.
- Crystal, David (1997)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
- (2008) ‘Two Thousand Million?’, *English Today* 24(1): 3-6.
- Deterding, David (2010) ‘Variation Across Englishes: Phonology’, in Andy Kirkpatrick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World English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85-399.
- Gargesh, Ravinder (2009) ‘South Asian Englishes’, in Braj B. Kachru, Yamuna Kachru & Cecil L. Nelson (eds), *The Handbook of World Englishes*, Malden and Oxford: Blackwell, 90-113.
- Gile, Daniel (1995)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Amsterdam and Philadelphia: J. Benjamins.

- Graddol, David (2006) *English Next*, British Council.
- Kachru, Braj B. (1985) 'Standards, Codification and Sociolinguistic Realism: The English Language in the Outer Circle', in Randolph Quirk, & Henry Widdowson (eds), *English in the World*, Cambridge: Cambridge U, 11-30.
- Kirkpatrick, Andy (2010) *The Routledge Handbook of World English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azzetti, Andrea (1999) 'The Influence of Segmental and Prosodic Deviations on Source-Text Comprehension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he Interpreters' Newsletter* 9: 125-147.
- Meng, Helen, Chiu-yu Tseng, Mariko Kondo, Alissa Harrison & Tanya Viselgia (2009) 'Studying L2 Suprasegmental Features in Asian Englishes: A Position Paper', *Interspeech 2009 Brighton*: 1715-1718.
- Pöschhacker, Franz (2004)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London: Routledge.
- Shackle, Christopher (1987) 'Speakers of Indian Languages', in Michael Swan & Bernard Smith (eds), *Learner English: A Teacher's Guide to Interference and Other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 170-184.
- Tauroza, Steve & Desmond Allison (1990) 'Speech Rates in British English', *Applied Linguistics* 11(1): 90-105.
- Trudgill, Peter & Jean Hannah (1994) *International English: A Guide to Varieties of Standard English* (3rd ed.), London and New York: E. Arnold.
- Varonis, Evangeline M. & Susan Gass (1985) 'Non-native/Non-native Conversations: A Model for Negotiation of Meaning', *Applied Linguistics* 6(1): 71-90.
- Weismer, Gary & Ruth E. Martin (1992) 'Acoustic and Perceptual Approaches to the Study of Intelligibility' in Kent, Raymond D. (ed), *Intelligibility in Speech Disorders: Theory, Measurement, and Management*, Amsterdam: Benjamins P, 67-118.
- Wells, John C. (1982) *Accents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
-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English-speaking\\_population](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English-speaking_population)
- <http://www.fon.hum.uva.nl/praat/>

[Abstract]

**Problems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from World Englishes to Korean:  
Case study on Indian English**

Huh, Ji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looks into problems experienced by English-Korean interpreters as they interpret from World Englishes - in this case Indian English - into Korean. A simultaneous interpretation experiment was conducted on 10 interpreters, followed by retrospective think-aloud procedures.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segmental and suprasegmental problems Korean interpreters find difficult to solve as they perform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suprasegmental elements imposed the greatest problems o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process. Difficulty in capturing the phonological elements resulted in poor intelligibility, thereby undermining interpreters' comprehensibility on the source text meaning. Unintelligible suprasegmental elements of Indian English included lexical stress (or pitch stress) in wrong syllables, sentence stress in function words, monotonous intonation, and lack of pauses. The syllable-timed language feature of Indian English put particular difficulty on interpreters' listening phase. Segmental elements were also found to be contributing to low intelligibility of Indian english, albeit to a lesser degree, compared to suprasegmental elements.

Interpreters responded to unintelligible elements by omitting, substituting, summarizing, generalizing ST segments in the production phase, which eventually undermined the fidelity to the source text.

▶ Key Words: accent, ELF, English-Korea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dian English, phonology, segmental features, suprasegmental features, World Englishes

허지운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강사

jiun\_h@naver.com

관심 분야: 세계영어, ELF, 동시통역 프로세스, 통역 교육

논문투고일: 2013년 3월 28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6일